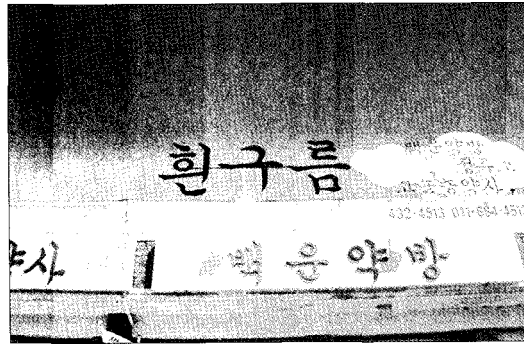


공공디자인 교육을 통한 공공디자인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충남공공디자인클리닉센터는 지난 2009년 2월 23일에 센터를 개소한 이래로 충남도내 16개 시·군 공공디자인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과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공공디자인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지자체가 공공디자인의 중심점 모색을 위해 너도나도 뛰어 들고 있지만, 정작 일선에서 공공디자인을 접하게 되는 공무원들은 교육의 부재와 업무의 중복으로 인해 기피하게 되는 대상이며, 접근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8월 27일에 충남공공디자인클리닉센터(센터장 이충훈) 주최로 16개 시·군 공공디자인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디자인 모범지역 답사에서는 전주한옥마을과 진안군 백운면을 방문, 충남도 지역과 유사한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우수한 공공디자인 체험 및 진행 과정등을 알아 살펴보고, 이번 답사를 통해서 일선에서 공공디자인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관심과 디자인에 대한 의식을 전환할 수 있었다.

